



서글프지만 새로운 도전 야구인생 마무리는 한국

'오릭스맨' 박찬호 240만달러 1년 계약

발투수를 맙아달라는 제의를 듣고 '내게 암 청난 유혹의 손길'이라고 느꼈다"며 "선발로 뛸 수 있고 도전한다는 데 큰 비중을 뒀다"며 4년 만에 다시 선발로 복귀한다는 사실에 각별한 의미를 뒀다.

박찬호는 오릭스와 1년간 연봉 120만달러, 옵션 100만달러 등 24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이 이날 1년간 연봉 총액 2억5000만엔(약 34억4000만원)에 계약했다고 전한 것과 비슷하다.

다면 박찬호는 투구이닝당 10만원씩 오릭스가 한국의 복지체계에 기부금을 내달라는 조건을 관철했고 오릭스는 한국 유소년 야구 발전기금을 부담하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국 코치 연수도 받아들이기도 했다.

'꿈의 무대'인 메이저리그에서 17년간 걸어온 긴 여정을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박찬호는 마음 속 아쉬움도 털어놓았다.

1994년 미국프로야구 로스엔젤레스 다저스에 입단해 올해까지 17년간 7팀을 거치며

개인통산 124승(98패)을 거둔 박찬호는 "일본 진출을 결정한 뒤 마음이 참 서글펐다. 많은 재미동포 덕분에 잘 버텼는데 이제 그분들을 떠나고 생각하니 아쉽다. 많은 미국교민, 도움을 준 미국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아쉬움을 남기자면 끝도 없다"던 박찬호는 "더 큰 경험을 쌓고자 일본에 간다. 2011년 시즌이 끝난 뒤 진로를 다시 생각하겠지만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싶다"며 최종 종착역은 한국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3년간 불펜투수로 뛰다 보니 선발투수로 활약할 수 있는 투구 이닝이 부족했던 박찬호는 '예년보다 공을 일찍 던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금 통로스를 하고 있다'며 "내년 2월 스프링캠프부터 최선을 다해 컨디션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박찬호는 내년 1월 말까지 개인 훈련을 벌이고 2월 1일부터는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린다. /연합뉴스



나한테 딱 걸렸어! 뉴욕 스콜어 가든에서 열린 미대학농구(NCAA) 경기에서 데이비슨의 포워드 클린트 만(왼쪽)이 세인트 존 포워드 저스틴 브라우너의 속을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제2의 야구 인생을 열어젖힐 박찬호(37)가 "1994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마음가짐처럼 새롭게 도전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찬호는 21일 강남구 역삼동에 자신의 이름을 따 만든 '파트너스 박 61' 클럽에서 오릭스 입단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의 영향도 있지만 은퇴 후 큰 경험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일본을 택했다"면서 "이승엽(34)이 있었기에 오릭스로 결정했다.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배에게 큰 신뢰를 드러냈다.

또 "지난달 오릭스와 처음 접촉했을 때 선

“홈팬 많은 1루쪽 높게 비대칭구장 어때요”

윤석민 등 강운태 시장과

야구장 건립 '번개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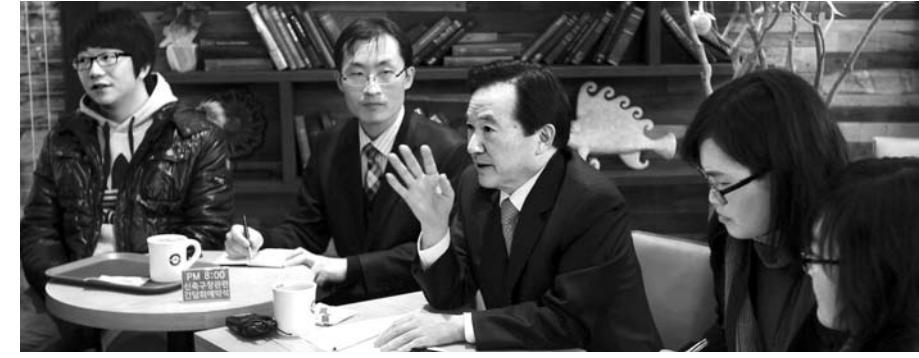
"V10에 빛나는 타이거즈의 역사에 맞는 역사관을 지어주세요."

KIA 타이거즈의 대표 선수 윤석민·양현종이 20일 광주 치평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진행된 강운태 시장과의 '번개미팅'의 특별 게스트로 나섰다. <사진>

이날 '번개 미팅'은 새로 짓게 될 야구장 건립에 대해 강 시장과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지난 13일 강 시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새 야구장 건립에 대해 시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글을 올리면서 만남이 성사됐다.

1시간 가량 진행된 대화에서는 구장내 카페테리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 셔틀버스 운영, 야구체험시설, 탁아수유 시설, 물품보관소, 팬들의 이름을 적은 벽돌로 외부 장식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선수대표로 참가한 양현종과 윤석민도 참가자로 의견을 밝혔다.



윤석민은 "외국같이 선수 출입로가 따로 마련되면 좋겠다. 늘 좋은 기분으로 팬들을 대해드릴 수 있고, 사직구장에서의 일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내신 팬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팬사인회 등 만남의 시간을 늘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민은 "현재 경기장은 원정팀 터이웃 상황이 좋지 않아서 선수들이 버스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광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부끄럼지 않은 시설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표팀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기장에 서봤

던 윤석민은 "샌디에이고 펫코카르나 도쿄돔에서 경기를 하면 최고의 선수가 된 기분이 드는 정도로 구장 자체가 예술이다. 광주도 뭇색 있는 구장을 만들면 좋겠다. 홈팬들이 많은 만큼 1루쪽을 높게 하거나 한쪽 외야 팬스를 짧게 하는 등 비대칭구장도 특색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원정팀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양현종은 "현재 경기장은 원정팀 터이웃 상황이 좋지 않아서 선수들이 버스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광주를 찾는 손님들에게 부끄럼지 않은 시설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표팀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기장에 서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출신 17세 박정환 국내 최연소 入神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바둑 2관왕인 광주출신의 박정환이 국내 최연소기록으로 입신(入神)에 등극했다.

한국기원은 21일 서울 역삼동 GS타워 32층 이사회 회실에서 제92회 심야이 사회를 열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석권한 국가대표팀 전원에 대해 1단씩 승단시키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8단이었던 박정환은 9단으로 승단했다. 1993년 1월 11일 생인 박정환은 만 17세 11개월 만에 최고단인 9단에 올라 박영훈 9단의 만 19세 3개월을 1년9개월 단축하며 역대 최연소 9단의 영예를 안았다.

2006년 5월 제105회 입단대회에서 13세의 나이로 입단한 박정환은 2008년 11월에 3단이 되기까지는 정규 승단대회를 통해 승단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원의배 심야전 우승으로 4단 승단, 같은 해 12월 박스배 천원전에서 우승하며 5단으로 오르는 등 대회 우승시 승단하는

특별승단제도를 통해 빠른 속도로 승단했다.

올해 1이창호

9단을 물리치고 원의배 심야전 2연패

에 성공한 박정환은 원의배가 상금을 증액하며 국내



3위기전으로 올라서는 행운에 힘입어 두

계단 올라서며 7단이 됐다. 5월에 다시

정규승단대회에서 8단까지 오른 박정환은 이사회에 의결로 바둑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입신의 반열에 올랐다.

광주 아시안게임 2관왕에 오른 박

정환은 9단 승단 이외에도 병역특례혜택, 월 30만원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 최고 수혜자가 됐다. 그러나 중국의 천야오에가 가진 17세 6개월의 세계 최연소 입신기록에는 5개월이 모자라 기록 경신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내년 3월 25일 점프볼

남자프로농구 2010-2011 시즌 플레이오프가 내년 3월 25일 시작된다.

KBL이 21일 발표한 올 시즌 포스트시즌 일정에 따르면 내년 3월 20일 정규리그 경기를 마치고 나서 당초 뒤인 3월 25일부터 4위-5위, 3위-6위 간 5전3선승제의 대결로 6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4월 4일부터 열릴 4강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에서는 정규리그 1위와 4-5위 승자, 2위와 3-6위 승자가 맞붙는다. 우승팀을 가릴 텐데 결전은 내년 4월 16일부터 7전4선승제로 개최된다.

정규리그 순위가 앞선 팀이 주말에 열릴 시리즈 1, 2차전을 흡에서 개최하도록 했고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지난 시즌과 달리 연속 경기를 최소화했다.

서울 연고팀이 텐데 결전에 진출하지 못하면 지난 시즌처럼 5~7차전은 서울 중립경기로 개최한다. 7차전에서 우승팀이 확정되면 을 시즌은 내년 4월 28일 막을 내린다.

한편 KBL은 올스타전 추천 선수 선발 방식에 다소 변화를 줬다. 그동안은 프로 구단 감독 및 기술위원회가 선수 선발을 도맡았지만 시즌은 감독과 기술위원회 의견은 80%만 반영하고 나머지 20%는 선수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올스타전 추천 선수를 선발하기로 했다.

또한 양팀이 12명의 엔트리 외에 1명씩 와일드카드 선수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드림팀과 매직팀으로 나뉘 치는 올스타전은 내년 1월 29일과 30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추신수·정다래 등 AG스타

투르드 코리아 홍보대사로

투르드 코리아를 개최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주우아시안게임 스타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체육공단은 23일 오전 10시 송파구 방이동 읍평파크텔에서 추신수(야구), 정다래(수영), 손연재(체조), 지소연(축구), 차유람(당구), 박성백·이민해(이상 사이클) 등 7명을 '투르드 코리아 2011'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위촉식을 갖는다.

투르드 코리아 내년 대회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전국 10개 거점 도시를 경유하며 2400km를 달릴 예정이다.

한편 홍보대사에 선정된 추신수는 23일 일에는 고향 꿈나무를 위해 '꿈의 날개, 추신수 야구 교실'이라는 이름의 야구 행사를 연다.

부산 남구 백운포 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부산 야구 꿈나무 50명, 기장군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 20명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광고집수안내

• (062) 227-9600

• FAX:(062) 227-9500

수익성 좋은 원룸 급급매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동 원룸

신규리모델링 방17개 치약방16개

매기 343천원, 월50만원수입

전화 010-8247-1001

수익성 좋은 원룸 급급매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동 원룸

신규리모델링 방17개 치약방16개

매기 343천원, 월50만원수입

전화 010-8247-1001

수익성 좋은 원룸 급급매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동 원룸

신규리모델링 방17개 치약방16개

매기 343천원, 월50만원수입

전화 010-8247-1001

수익성 좋은 원룸 급급매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동 원룸

신규리모델링 방17개 치약방16개

매기 343천원, 월50만원수입

전화 010-8247-1001

수익성 좋은 원룸 급급매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동 원룸

신규리모델링 방17개 치약방16개

매기 343천원, 월50만원수입

전화 010-8247-1001

수익성 좋은 원룸 급급매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동 원룸

신규리모델링 방17개 치약방16개

매기 343천원, 월50만원수입

전화 010-8247-1001

수익성 좋은 원룸 급급매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동 원룸

신규리모델링 방17개 치약방16개

매기 343천원, 월50만원수입

전화 010-8247-1001

수익성 좋은 원룸 급급매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동 원룸

신규리모델링 방17개 치약방16개